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제120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2014년 송년법회 중에서

## 2015년 송년법회 봉행

12월 31일(목) 오후 9시 30분

오는 12월 31일(목) 오후 9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2015년 송년법회를 봉행합니다. 금강선원에서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법회를 통일 의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일의식은 새해 첫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

식으로 삼보의 은혜를 입은 대중들이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할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법보와 승보에 삼배를 올리고 또한 동참한 대중들도 서로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속의 세배와는 달

리 삼라만상의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는 정진의 해가 되기를 발원하는 송년법회에 가족 친구 도반들과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2015년 동지법회 봉행

오는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동지법회를 봉행합니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은 가장 길어 음의 기운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하여 팔죽을 쑤어 나누어 먹는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금강선원에서는 동지를 맞아 지난

한해를 잘 보낸 것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안녕을 발원하며 기도합니다. 법회가 끝난 후 헤거 큰스님의 원각경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어 뜻 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성도재일 철야정진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성도재일을 맞아 금강선원에서는 2016년 1월 16일(토) 밤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철야 정진을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진리를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 되던 해 음력 12월 7일 초저녁, 석가모니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드신 지 7일 만에 새벽별이 뜰 때 쯤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을 얻어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끊고 생사 해탈한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수행 정진하여 부처가 되신 것은 살아 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더욱 가행 정진하여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 ▶ 일시 : 2016년 1월 16일(토) 밤 9시 30분
- ▶ 장소 : 대법당

## 노자 『도덕경』 특강 개강

오는 11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대법당에서 헤거 큰스님의 도덕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강은 헤거 큰스님께서 도가사상의 집적(集積)으로 알려져 있는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모든 주석을 종합하여 마음 닦는 법, 세상 사는 법을 중심으로 강의하십니다. 특히 이번 도덕경 강의는 BBS에서 녹화하여 2016년 1월부터 방송 예정입니다.

- ▶ 일시 : 매주 수,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 장소 : 대법당

- |  |
|--|
| <p>하반기 수계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11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li> <li>▶ 장소 : 대법당</li> </ul>       |
| <p>제28기 기초참선반 수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12월 16일(수) 오후 7시</li> <li>▶ 장소 : 대법당</li> </ul>    |
| <p>금강경독송 집중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밤 7:30~10:30</li> <li>▶ 장소 : 대법당</li> </ul> |

##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불교역경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큰 뜻을 널리 펼치고자 시작되는 성스러운 대방광불화엄경 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큰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 대방광불화엄경 經 제목 (각 1자) : 1천만원
- ❖ 글자 100자 (10구좌) : 1천만원
- ❖ 글자 10자 (1구좌) : 108만원

- ❖ 동참계좌 : 신한은행 100-029-930686 금강선원
- ❖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445-8484)

#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 및 수륙대재 봉행.....



탄허기념박물관 개관5주년을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하시는 혜거 큰스님

지난 11월 21일(토)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와 수륙대재가 봉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개관 5주년 기념법회가 시작되었고, 개회사(삼지스님, 자광사 주지), 경과보고(법해, 금강선원 신도회장), 만일수행결사 1400일 회향 경과보고(명원, 만수결회장) 및 탄허대종사 행장 낭독(덕운, 금강선원 신도회 고문)에 이어 기념법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소개와 개관 5주년을 축하하는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께서는 인사말씀에서, 탄허스님의 사상을 기리고 인재양성을 위해 건립된 탄허기념박물관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진행되는 화엄경 80만자를 새기는 화엄각 대작불사에 많은 동참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강경강송대회는 종교를 초월한 문화축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시면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여 문화를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의 축하를 끝으로 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만일수행결사 1400일 회향을 맞이한 기념법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법계평화를 발원하고 대자비를 실천하는 장엄한 의식인 수륙대재가 1시 10분부터 금강경 합송을 시작으로 봉행되었습니다. 동희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번 수륙대재는 특별히 전통의례인 순당의식을 먼저 진행한 후 수륙대재로 이어졌습니다.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 일심으로 기도하며 정성스럽고 여법하게 진행된 시간이었습니다.



개관5주년 기념법회를 시작하며



동희스님의 집전으로 수륙대재를 시작하며



축기를 부르는 금강선원 가가합창단



수륙대재 중에서



수륙대재에 앞서 진행된 순당의례



수륙대재 중에서



정성을 다한 수륙대재를 마치며



수륙대재 중에서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도

지난 11월 12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6층법당에서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동참자 모두 수험생과 한마음이 되어 시험시간표에 맞춰 일념으로 기도하였습니다.



##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개강

지난 11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노자사상을 해석하고 비유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상사는 지혜를 배우는 한비자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⑧



心本是佛이로대 由念起而漂沈하며 岸實不移로대 因舟行而驚駭하나니

마음은 본래 부처이지만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 표류하고 잠기며 언덕은 그대로인데 배가 달림으로 언덕이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심본사불心本是佛이로대 유념기이표침由念起而漂沈하며.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생각이 일어남으로 표류하고 침체되며. 우리는 모두 본 마음이 부처인데 이런저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고, 착각을 하지 않으니 부처의 마음이지요. 표류하고 침체된다는 것은 여러 생각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난 마음은 곧 환념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념이 생기지 않고 흔들릴 일이 없겠지요.

원각경에서 가르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입니다. 무엇이 환이냐? 착각이 환이요, 꿈이 환이요, 번뇌가 환이요, 무명이 환입니다. 이런 환, 착각, 꿈, 번뇌, 무명은 모두 아상 때문에 생깁니다.

안실불이岸實不移로대 인주행이묵취因舟行而驚駭하나니. 언덕은 실제 움직이지 않으나 배가 감으로 인하여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배를 타고 주위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움직인다고 착각하지요. 이게 환이요.

정리해보면, 마음은 본래 부처인데 생각을 일으켜서 환념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강가의 언덕은 그대로인데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변 언덕이 움직인다는 착각을 합니다.

頓除妄幸하면 空不生華하며 漸竭愛源하면 金無重鑛하리라

허망한 티끌이 단번에 사라지면 허공에 꽃이 피어나지 않고 점점 사랑의 근원이 다하면 금은 다시 광석이 될 수 없다.

돈제망재頓除妄幸하면 공불생화空不生華하며. 단번에 망념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을 없애면 허공에는 꽃이 피지 않을 것이고, 돈頓은 '단박에' '순식간에' 라는 뜻이고, 망재는 나를 망념되게 주재하는 놈인데 망재 역시 환이요. 허공에 꽃이 핀다는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눈에 병이 난 사람이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허공에 없는 꽃을 봅니다.

선어록 중에, 만목청산-눈에 청산만 가득하더라.-이란 말이 있는데, 망념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의 산을 본다는 뜻이요. 오대산 한 암스님 오도송은 '창문을 열고 보니 담장에 기와장만 보이더라.'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본다고 하였고, 보우국사는 '산 속에 누워서 구름하고 대화를 한다.' 고 했어요. 구름을 보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구름과 대화가 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제대로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에 잘못 가는 일

은 없어요. 점갈애원漸渴愛源하면 금무중광金無重鑛하리라. 점차 애욕의 근원이 메달라 버리면 금은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다. 여기의 애는 남을 어여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아니고 애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애욕에서 자유로워지고 업장소멸해서 성불하게 되면, 광석이 용광로를 거쳐서 금이 되면 다시 광석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듯이 우리도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박에 망념을 주재하는 것을 없애면 허공에 환화는 생기지 않고, 점차 애욕의 근원이 마르면 금은 다시 광석으로 되지 않으리라.

理絕修證하나 智似階差하나 覺前前非면 名後後位니

이치는 수증이 끊기나 지혜는 계차와 같으니 전전의 잘못을 깨달으면 후후위라 말한다.

이절수증理絕修證하나 지사계차智似階差하니. 이치로는 수증이 끊어지나 지혜는 차별을 하고 알음아리를 내는 것과 같다. 이치로는 닦아서 증득할 것도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으나, 머리로는 차별이나 등급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이치는 본 마음이고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요.

각전전비覺前前非면 명후후위名後後位니. 지나간 잘못을 깨달으면 이름하여 후후위라 한다. 후후위는 최고의 인격자 자리인 구경위를 말합니다. 불자들이 경전을 달달 외우고 절을 문지방이 달토록 다녀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요.

정리해보면, 이치로는 증득할 것이 없으나 지혜로는 차별을 하니, 지나간 잘못을 깨닫는다면 바로 구경의 자리라 할 것이다.

況妄에 忘起滅하야 德等圓明者焉이여 然이나 出塵良駒는 已搖鞭影이어나와 埋塵大寶는 須設治方일세.

하물며 허망의 기멸을 잊음으로써 덕이 원명과 같음이며, 그러나 마구간을 벗어난 천마는 채찍 그림자에 달리고蹄跡에 묻혀있는 보배는 반드시 다스리는 방법을 세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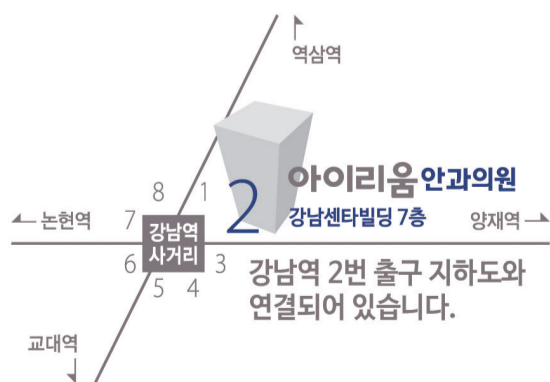
황망況妄에 망기멸忘起滅하야 덕등원명자언德等圓明者焉이여. 하물며 망으로 기멸을 잃어버려 덕이 원명과 같아짐이여. 기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헛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덕이 원만하고 환히 밝아지더라.

연然이나 출구양구出塵良駒는 이요 편영已搖鞭影이어나와. 그러하니 마구간을 벗어난 훌륭한 말은 이미 채찍 기림자만 봐도 달리거니와. 이 말은 훌륭한 수행자는 조그만 암시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매진대보埋塵大寶는 수설치방須設治方일세. 티끌 속의 보물은 모름지기 다스릴 방법을 세워야 한다. 즉 꺼낼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채찍이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대상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하고 그래야 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정리하면, 하물며 모두 탐진치가 사라지니 덕은 원만하고 밝다. 마구간을 벗어난 훌륭한 말은 이미 채찍 그림자만으로도 달리고 흙 속의 큰 보물은 모름지기 꺼낼 방법을 세워야 한다.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증-66396호



##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呑虚大宗師遺墨選



500 x 800mm

### 부채

故人云 風動於何處? 動於動處!  
我裏不然, 動無所動.  
且道! 與古人所云, 同耶? 不同耶?  
良久云唸!

옛 스님이 말하기를,  
“바람은 어느 곳에서 동하는가? 동하는 곳에서 동한다” 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그럴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하나 동한 바 없다고... 또 일러라.  
“옛 스님이 말한 것과 같은가? 다르는가?”  
한참동안 말이 없다가 “아!”

### 미륵반가사유상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관람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상의 양식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상을 감상하고, 불상의 변화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장의 말미를 장식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83호, 국보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워낙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불상이고 종교적·예술적 미학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문득 미륵 반가사유상과 비교되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에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미륵반가사유상은 고집멸도(苦集滅道)의 길을 지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미륵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륵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 근원과 제작시기 및 동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깊게 사유(思惟)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유(思惟)의 사전적 의미는 ‘깊게 생각하는 일’로 인간의 이성작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프

### 박물관 단상

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존의 근원을 사유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작품은 제작 시점에서 10세기 정도 차이 나는데, 미륵반가사유상은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의 표상이 아닌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낙엽길을 걸으며 일상의 고단함과 번뇌를 지옥의 문으로 던져 버리고, 미륵반가사유상의 천년 미소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모산자락에 위치한 탄허기념박물관의 낙엽도 금강산 원 불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 최미금 학예사

### 서울시 메르스 관련 박물관 지원사업

지난 5월 메르스 질병관련하여 박물관들의 입장객이 급격하게 줄어 고사 위기에 놓인 박물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박물관 협의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박물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르시 관련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박물관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무료로 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곡초등학교 3개 반 학생102명이 이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박물관 곳곳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 2015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지난 11월 17일(화),18일(수),25일(수)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응답하라 1959’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왕복초등학교 학생들이 3일 연속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생들이 진지하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의 박물관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메르스의 추가 발병도 없고, 어느 정도 확산세가 안정이 되어서 다시 박물관 교육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 모두 1교시 명상 수업으로 뇌를 일깨우고 나서, 본격적인 박물관 투어를 시작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박물관 곳곳의 사진을 찍고, 가장 활발하게 사진을 꾸민 학생들이 기념품을 받았고 이로서 2015년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수업 1,300명의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탄허기념박물관  
TANHEO MEMORIAL MUSEUM

### 박물관 소식

- 2015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 교육기간 : 3월~10월
  -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00~14:20/오후14:00~16:20
  -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 11월 03일 : 자곡초등학교 40명(서울시 지원교육)
  - 11월 04일 : 자곡초등학교 40명(서울시 지원교육)
  - 11월 06일 : 자곡초등학교 22명(서울시 지원교육)
  - 11월 13일 : 그랜드 세일 결과보고회(명동 롯데씨네마 예비뉴젤)
  - 11월 17일 : 왕복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11월 18일 : 왕복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11월 21일 : 수목대재, 개관5주년 기념법회
  - 11월 24일 : 어르신 사업 최종 워크숍(남산 유스호스텔)
  - 11월 25일 : 왕복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11월 30~31일: 관장 컨퍼런스(중앙박물관)
-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 “거기 누구냐?” 셰익스피어의 『햄릿』

“

인간이란 결박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매하고 능력은 또 얼마나 무한하고 생김새와 움직임은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우며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고,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가!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만물의 귀감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내게는 그게 티끌 하나만도 못하게 보이는 걸까?

”

달레마에 빠져 고통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결박된 듯하나, 사실은 티끌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고 햄릿은 탄식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1600년 즈음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시기 유럽은 길고 어두운 중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명의 꽃을 막 피워내고 있었지요. 새로운 우주관인 지동설의 시대이기도 하고, 대항해의 시대이며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예술이 발흥하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찬사가 가능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 햄릿은 ‘고결한 정신과 아름다움 품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일국의 왕위 계승자였으니, 그에게는 인간을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왕이 갑자기 서거하고 삼촌이 왕위를 계승하지요. 게다가 애도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머니는 새 왕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만 해도 햄릿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삼촌 클로디우스가 자신을 살해했으니 복수를 해달라

고 부탁하지요. 신의 걸작품인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반대의 얼굴, 배신과 혐오의 끝을 보아버린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왕자는 천국과 지옥을 극단적으로 오가며 달레마 빠져듭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의 고민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3막 1장의 대사가 등장하지요. 대사는 그 자체로 유명하지만, 뒷부분과 이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명료해집니다. 사는 것은 “변덕스러운 운명이 쏘아대는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일”이고, 죽는 것은 “고난의 파도에 맞서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가 끝장을 보는 일”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햄릿을 괴롭히는 고민의 핵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견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다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문제이지요.

만약 햄릿이 할리우드의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였다면, 고민을 순식간에 떨쳐내고 달려 나가 통쾌한 복수극을 펼쳐보였겠지요. 그러나 계속 번민하면서도 햄릿은 유령으로 나타난 부왕의 명령을 얼른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햄릿은 지난 400여 년 간 유약한 인간형의 대표 주자가 되어왔습니다. 우유부단한 결정 장애자, 마마보이, 의지박약의 우울증 환자, 행동하지 못하는 창백한 지식인 등의 이름표가 계속 따라붙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미워도,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도 파멸을 할 것이 분명한 복수극을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햄릿에게는 복수를 해

야 할 이유도 많았지만, 복수를 회피해야 할 이유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알고 보면 티끌에 불과한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버리기는 어렵지요.

햄릿은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햄릿의 고민은 이제 복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입니다. 햄릿은 복수의 명령을 받은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결국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선택지를 치열하게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햄릿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인간의 쓸쓸한 숙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하늘의 순리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해결할 순간을 담담하게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결투가 벌어지고, 클로디우스는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햄릿은 달레마에 빠진 복잡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썼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햄릿 같은 면이 있다”라든가 “햄릿은 나를 위해 쓰였다”라는 평가들의 말은 햄릿이 우리와 매우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햄릿』의 첫 대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거기 누구냐?(Who’s there?)” 도대체 햄릿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글 / 한수영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백담사

百潭寺 오르기 힘들거든  
욕심을 버리시게  
그래도 힘들거든  
이름마저 버리시게

칠층 탑 층마다 어린 서릿발  
忍慾은 진정 어렵지만

무릎 꿇고 엎다어서  
대웅전에 물어보시게  
얼마나 빌어야 오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버려야 자유로워질지

종소리에 닦고  
북소리에 깨우치시게

소리와 소리 재 넘어 가도록  
무심도 선정도 들지 않거들랑  
오롯이 두 손 모아  
삼천 배를 해보시게

살도 기도도 물들어 가는 것  
오체투지의 땀방울이 백팔 번의 새벽을 열면  
무겁던 그대의 업장 녹아내리고  
그대 모르던  
그대 속의 참마음을 깨울 터이니

머잖아 허망한 분별을 여의고  
百潭寺 하늘 담긴 못처럼 청정묘심이 되어  
반야바라밀의 평온한 저 언덕에 능히  
이르지 않으시겠나

글, 사진 / 정도원(송파선동 법장)



### 고전멘토 - 나를 성장시키는 열 권의 고전 -

데미안, 어린 왕자, 햄릿,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  
고전 속 주인공이 들려주는 불안, 기쁨, 슬픔, 성장, 환희의 이야기

“고전 멘토들은 이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보며 더욱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에 감염되어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잘 것 없는 조각배를 타고 저 운명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결국 파멸해가는 뒷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슬픔과 고통 위에서 피어나는 존엄한 인간을 끝내는 마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 이고 ‘너’ 이며, 마침내 ‘우리’ 인 것입니다.” - 책의 서문 중에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로 인해 늘 불안하고 고독한 청소년들에게 고전 속 열 명의 멘토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담긴 책. 『고전멘토』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정, 한수영 지음 | 김정진 그림 | 꿈결 펴냄

### 불성을 일깨우는 경건한 축제

10월 17일 아침, 금강경강송대회 현수막이 펄럭이며 응원하는 힘찬 소리, 탄허기념박물관을 붉게 물들인 단풍잎들의 소리, 이 모두가 법향이 되어 시월의 산중을 향기롭게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꽃꽂이와 부처님 인연으로 시작된 수서경찰서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번 금강경강송대회 단체전에 경승실 불자회를 비롯하여 시각장애 법우들과 일반 불자들이 연합한 수서경찰서팀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은 수서경찰서 법당에서 저녁예불을 드린 후 금강경 장엄정도본, 일합이상본, 지전불생본, 응화비진분을 독송하며 정진했습니다.

수서경찰서 불자회 회장인 성옥수 법무님(형사과), 부회장 이필자 법무님(수사과), 총무 한희수 법무님(교통과)은 근무와 외근, 출장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습에 동참해주셨고, 시각장애 법우들은 연화원 광림사에서 일요법회가 끝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화원은 방해성 스님께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법우들을 위해 포교하시며 일자리 창출, 교육, 법회를 여는 부처님 실천도량입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꽃꽂이 강사)행을 하며 많은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태봉 법무님(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 회장), 박노달 법무님(시각장애인협회 고문, 역리학회 회장)은 전국의 시각장애 법우들을 포교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시면서 정진해주신 진화성 보살님, 정법행 보살님뿐 아니라 같이 동참해주신 많은 인연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6년 금강선원 헤거 큰스님 법문에 큰 감동을 받아 참선 공부에 입문하여 참나를 찾는 정진과 봉사로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경찰서팀이 신심 깊은 봉사자로 포교사로 거듭 향상되기를 발원하며, 내년에는 팀 전원이 개인부문에 응시하기를 약속합니다. 또한 청각장애법우와 일반 봉사자가 함께하는 수화 금강경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법향이 온누리에 그윽하며 원만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헤거 큰스님!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를 열어 공부의 장을 만들어주신 은혜에 다시금 삼배로 정례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지혜의 꽃을 헌화합니다. 빛 고운 가을 국화 꽃뫼음으로 지고지순한 법우님께 축하드립니다. 금강 같은 진리, 물들지 않는 연화장 세계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후원해주신 서울시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 청심(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단체전 특별상)



단체전에 참가한 수서경찰서팀

### 청소년 집중명상 심화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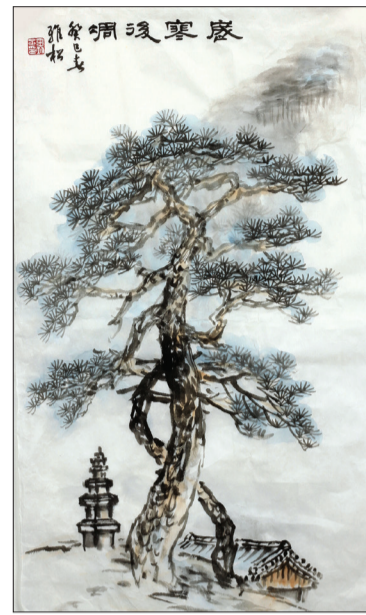
청소년 집중명상 심화반에서는 지난간 시간을 돌아보고 명상을 하기 전과 명상을 하고 하고난 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명상을 통해 집중력이 생겼고 차분해졌으며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명상 시작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급한 성격이 차분해졌다. 영어본문 외우는 속도가 빨라졌다. 거친 말이 줄어들었다. 참을성이 생겼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잔다. 수업시간에 자지 않고 집중한다. 스마트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계

임을 줄였다.) 학교에 일찍 간다. 성격이 올랐다. 생각을 하게 된다. 폭설 수 있게 되었다. 공부가 재미있다.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 짜증을 덜 낸다.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부지런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보다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 美와醜



세한후조 450 x 750mm

얼마 전 단풍이 유명하다는 산으로 배낭 하나 달랑 둘러메고 가을을 담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스케치 할 몇가지를 배낭에 집어넣고 나서는 발걸음이 몹시도 가벼운 것은 일상의 탈출이 주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단풍을 즐기려 산을 찾은 인파에 휩쓸려 차에서 내리자 초입부터 펼쳐진 사람들의 차림새에서부터 벌써 단풍은 물들어 있었습니다. 등산로 주변 계곡을 따라 오색 단풍이 너무나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갈채를 받으며 나무 가지마다 걸려있는 노랑과 빨간 형형색색 단풍들의 손짓은 대자연이 연출하는 뮤지컬 그 자체였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산 중간쯤에 몸 하나 받아 줄 바위에 걸터앉아 빙 둘러보니 나 또한 오색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한 떨기 단풍이랄까! 누구라도 오늘 이산을 찾은 사람은 나 같은 감흥을 느꼈으리라.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 이제야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앙상하게 여윈 잿빛 그늘아래서 거무튀튀한 파편으로 나뉘는 추운 추운 모습이 연상됩니다. 애초 자연만물은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없이 본래 성정 그 자체로 있건만 미추를 구분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졸렬함이라 생각해 봅니다.

미의 어원에 대해 중국인 학자는 원시시대 양양의 형태나 양머리관을 쓴 대인(大人) 즉 토tem 악무나 무술을 진행하는 제사(祭司)나 추장(酋長)을 가리켰다 합니다. 즉 제사나 추장 등이 양 머리나 양 뿔을 머리에 쓰고 그 신비함과 권위를 과시하는

동물 분장 혹은 토tem 무술의 문자상의 표현(羊人爲美)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 개념의 미가 공자·맹자·노장자 등 여러 제자(諸子) 사상 뿐만 아니라 유·불·선 사상과 어우러져 동양미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추醜의 갑골문자를 보면 귀신(鬼)이 술 단지앞에서 술(酉)을 마시려는 형상에서부터 술에 취해 춤을 추는 천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귀신도 술에 취하면 추해지고 사람 또한 술에 취해 추한행동으로 망신살당하는 걸 언론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법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서양에서는 추를 미의 대립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미적 규범에서 어긋난 추는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미의 부정적 의미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미추에 대해 일찍이 장자는 미의 범주에 추醜를 끌어들이며 미는 외재하는 형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재하는 인격과 정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미와 추醜를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 융합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추醜가 철학의 영역에서 종종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19세기 독일 철학자 로렌크란츠가 이를 학문의 명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추의 미학'에서 추를 아름다운 학문 대상으로 도입하고 추는 미의 개념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의 역사'를 저술한 움베르트 에코 역시 미와 추를 반대의 개념이 아닌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늘 함께 공존하는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홍염이 난만한 계절의 풍요로움을 벗 끝에 흠뻑 적시고 묵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내려오는 발걸음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어느 분의 글귀를 빌려 말하자면 올라갈 때 보인 게 내려 올 때는 내 마음이 즐거운 탓인지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야! 누구야!' 부르는 소리, 귀청을 울리는 음악, 나무를 발로차거나 자리 깔고 흥건히 취한 모습들 어느 하나 낯설지 않은 아름다운 일상 아닌 게 어디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글. 그림 / 담현 김외재(문인화가)

### 만일수행결사회 1400일 회향을 맞이하여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회는 금강선원에서 보살운동을 전개하고자 결성된 수행모임입니다.

2005년 혜거 큰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론적인 정립을 위해 불교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2008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유산 대승불교의 『보살』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보살사상 선양법회를 시작으로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7일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법회에서 만일수행결사를 선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만일수행결사 입재에 들어간 후, 2015년 10월 31일 1400일 회향을 하였습니다.

보살의 근본정신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닦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아타의 실천입니다. 만일수행결사회는 이러한 보살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리의 수행으로는 독송, 염불, 참선 중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하여 만일동안 수행 정진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을 생활화하고, 이타의 수행으로는 봉사를 생활화하여 자비를 실천합니다. 각 수행팀은 5명 전후의 불자로 구성되며 1수행, 1바라밀, 1봉사를 실천합니다. 또한 100일마다 회향법회를 가지며, 매월 팀장회의를 개최합니다. 1000일 회향 때마다 회향법회와 함께 십지보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12년 12월에 1년을 결산하는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대 회장단 구성이 확정되었고, 2013년 11월에는 만

일수행결사회 수행 수첩을 배부하였으며, 2014년 11월 15일, 1000일 회향법회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4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제2대 회장단이 구성되었고, 2015년 5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팀장단합대회로 1박2일 템플스테이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만일수행결사 봉사의 일환으로 소년원 후원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졸업생들에게 매월 『하루 15분참선』 책 선물을 하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숙형 직업훈련기관인 <에스센터> 학생 2명에게 매월 장학금 20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수행결사 봉사후원 회원은 현재 80여명이 동참하고 계시며, 모금

방식은 월 5천원 이상 후원금을 만수결 봉사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연말 정산용 영수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24일부터 4박5일간 세계적인 불교자선재단과 복지사업의 중심인 대만 자재정사와 자재공덕회를 중심으로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등 더 많은 시도를 통해 앞으로 만일수행결사회 봉사활동의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현재 만일수행결사회 정회원은 560여명이 됩니다. 금강선원과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이 만일수행결사회에 빠짐없이 동참해주시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사찰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명원 (만일수행결사회 회장)

###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 시 금 | 천화당한의원 최선희 63선우회 맹자진심장반
- 보 시 물 | 허응심 장기팔 의륜행 자심행 요지행 무주상 이규흥 박현석 수서경찰서
- 대중공양 | 이재현 황명진행 신영식
- 수륙대재 대중공양 | 무주상 임태순 의락성 금강걸스 김춘애 정건성 김철관 용인수지선등 일원선등 이은동 최완숙 능지행
- 신년천도재 대중공양 | 임봉수
- 금강경강승대회 보시금 | 환희장 용인수지선등



###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엄경설판	1-1030 이문열	1-1050 이양우	1-1100 김동욱
안창문	1-1032 박희빈	1-1054 목준균	1-1101 정래현
김순자	1-1033 신흥식	1-1055 목성원	1-1102 정래춘
메디팜보문약국	1-1034 함주연	1-1056 이상락	1-1103 김정희
이달호	1-1035 강연우	1-891 전명기	1-1104 조동표
정래덕	1-1037 한경만	1-1057 박경호	1-1105 신윤용
구좌동참	1-1038 최윤선	1-1084 민병숙	1-1106 신윤호
1-952 조현국	1-1039 김종명	1-1083 김선희	1-1107 흥선주
1-953 장유민	1-1053 이승희	1-1095 김장희	1-1108 김태욱
1-1027 추윤석	1-1052 이재희	1-1096 정진용	1-1031 강복선등
1-1028 정수팀	1-1051 이재윤	1-1098 김영민	1-1064 대치선등
1-1029 정한욱	1-1053 이승윤	1-1099 우남제	1-1097 가가합찬단

### 永久위패 봉안 동참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 위패198 신청인 김원순/봉안인 김원순(예약)
- 위패199 신청인 김원순/봉안인 장인환 영가
- 위패200 신청인 김원순/봉안인 김장득 최삼례 영가
- 위패201 신청인 안효선/봉안인 박아령 영가
- 위패202 신청인 김철관/봉안인 김종홍 엄방환 영가
- 위패203 신청인 김철관/봉안인 김시완 영가
- 위패204 신청인 김철관/봉안인 채숙인(예약)
- 위패205 신청인 오정순/봉안인 오홍환 박정분 영가
- 위패206 신청인 고병옥/봉안인 고판남 김월봉 영가
- 위패207 신청인 고병옥/봉안인 고순희 영가
- 위패208 신청인 고병옥/봉안인 고채호 양氏 김아 영가
- 위패209 신청인 김순자/봉안인 김봉익 정득 영가
- 위패210 신청인 김순자/봉안인 김수전 영가
- 위패211 신청인 김순자/봉안인 김옥태 김봉정 김선희 영가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야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 19시 0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청년 10년 집중행자과정 5월2일~12월 12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12. 08 서울구치소 수계법회 14:00  
 12. 28 통도사 화엄 산림법회

**선원 일정 (12.1~12.30)**

12. 01(화) 21일기도 입재 9:20  
 02(수)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33강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04(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05(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06(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09(수)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34강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12. 11(금) 초하루기도 9:20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12. 12(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청소년명상지도자과정(3기) 수료식 14:00  
 12. 13(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12. 16(수)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35강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27기 기초참선 수료식 19:00  
 12. 18(금)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12. 19(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12. 20(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12. 21(월) 21일기도 화향 (9:20)  
 12. 22(화) 동지법회 10:30  
 12. 23(수)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36강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12. 25(금) 보름기도 9:20  
 12. 26(토) 청소년 명상(심화) 10:00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30  
 12. 27(일) 일요법회 한비자 특강 10:30  
 12. 28(월) 지장재일(위패봉안) 9:20  
 12. 30(수)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37강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 예정) 13:30  
 12. 31(목) 송년법회

**해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야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해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 15장

☎ 문의 : 교무팀 02-445-8484  
 ☎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해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선원 기도 동참 안내**

기 도 명	기 도 기 간 및 시 간	동 차 금
사시기도	매일 오전 9시 20분	
일년기도	매일 오전 9시 20분	2만원 / 매월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보름기도	매월 보름(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지장재일기도	매월 18일(음력) / 오전 9시 20분	1만원
소원성취 21일 기도	매월 1~21일 / 오전 9시 20분	5만원
생일기도 및 각종 축원	오전 9시 20분	3만원
대학수능100일 기도	100일기도 / 오전 5시, 9시 20분	10만원
입춘기도 / 동지기도	입춘, 동지/ 오전 10시 30분	각 3만원
신년3일기도	매년 1월 3일~5일(음력) / 오전 10시 30분	3만원
신년천도재	매년 1월 18일(음력) 오전 10시 30분	20만원
설날 / 추석합동차례 동참금		각 20만원
인등기도		1인5000원 / 매월